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 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셨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그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드러내셨다. 제자들과 그 후계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 이 만찬을 미사로 재현한다.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이 미사에서 성체성사의 신비와 사랑의 새 계명을 묵상하고, 발 씻김 예식에 참여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수난 감실로 옮겨 모신 성체 앞에서 밤새 깨어 조배하며, 당신 자신까지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입당성가 : 118번 '골고타 언덕'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8절. 11절-14절

화답송

◎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장 23절-26절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3절 1절-15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122번 ‘구원의 십자가’

영성체 성가 :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영성체 후 묵상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2026년 4월 3일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성찬 전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로 이어지는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한다. 본디 이날의 전례는 말씀 전례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십자가 경배와 영성체 예식이 들어와 오늘날과 같은 전례를 거행하고 있다. 오늘은 금육과 함께 파스카 단식을 한다.

입당 전 안내

오늘은 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입당성가 :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장 13절-53절

화답송

◎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4장 14절-16절; 5장 7절-9절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복음 : 18장 1절—19장 42절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보편지향기도

안 내 :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수난의 길을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주례자는 아래 기도를 정성되이 바친다.)

1) 교회를 위한 기도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었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 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교황을 위한 기도

†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만사는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어,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3) 성직자들과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

† 우리 주교 ()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 합시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 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어,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4)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것을 한데 모으시고 지켜 주시니, 주님의 양 떼를 돌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된 모든 형제를 신앙과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5)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고, 앓는 이, 굶주린 이, 옥에 갇힌 이,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 주시며, 임종하는 이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근심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환난을 겪으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십자가 경배

안 내 : 이제 우리는 십자가 경배 예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표지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살도록 다짐하며 십자가 경배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주례자가 제단 가운데에 서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아래와 같이 외칠 때마다 교우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크게 응답합니다.

(주례자)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세번)

(교우들) 모두 와서 경배하세. (세번)

(주례자는 십자가를 제단 가운데 모셔 놓고 앞으로 나와 깊이 절하며 경배한다.)

십자가 경배 예절 안내 : 이제 한 분씩 제단 가운데로 나와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여 깊이 절하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성가 125번 ‘거룩한 주의 십자가’)

영성체 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영성체 후 묵상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더냐? 무엇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더냐? 대답하여라.” 비탄의 노래 후렴구가 우리의 가슴을 후빕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향

파견성가 : 117번 ‘지극한 근심에’

2026년 4월 5일 / 주님 부활 대축일-파스카 성야

* 주례자와 해설자는 미리 전례 안내를 읽고 준비한다. (매일미사 참고)

* 신자들은 개인 초를 준비합니다.

* 주례자는 전례를 시작할 때 불을 모두 끈다. (손전등 준비)

입당 전 안내

그리스도 우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를 맞이한 우리는 일곱 개의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의 서간을 봉독하며 하느님께서 긴 세월 동안 이끄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온 구원의 현실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이 미사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됩시다.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 매일미사 참고)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빛의 예식 안내 :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이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 주례자는 화로가 준비된 곳으로 나와서, 불을 축복하는 기도를 바치고 부활 초에 불을 당긴다.

행렬

● 불 축복 후 주례자는 먼저 부활초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부활초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치면 교우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한다(3번).

(두 번째 외침 후 교우들이 부활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입니다.)

파스카 찬송

말씀의 전례

말씀의 전례 안내 :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제 1 독서 : 창세기 1장 1절-2장 2절

화답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모두 일어섭니다.

1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 3 독서 : 탈출기 14장 15절-15장 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생략하고 바로 화답송을 한다.

화답송 :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모두 일어섭니다.

3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루신 기적을 오늘도 보여주시니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새로 나는 세례의 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어 온 세상 사람이 선택된 민족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7 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16절-17절. 18절-28절

화답송 :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모두 일어섭니다.

7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영원한 빛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놀라운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굽어보시고 영원으로부터 마련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어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새로워지며 만물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해짐을 온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구약의 마지막 독서와 화답송과 기도가 끝나면 부활초의 불을 제대초에 붙이고 대영광송을 시작한다.**

대영광송

본기도

† 기도합니다.

하느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서 간 : 로마서 6장 3절-11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복 음 : 루카 복음 24장 1절-12절

강 론 : 교구장 부활 메시지 참조

세레 서약 갱신

(※매일미사 참고)

안 내 :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세레 때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들의 신앙을 서약합니다.

†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레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 시기를 마치며, 마귀와 그 행실을 끊어 버리고, 거룩한 가톨릭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레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 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 아멘.

보편지향기도

예물준비성가 :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영성체 성가 : 31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태어남에 무슨 뜻이 있으랴. 오, 놀라워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자비. 오, 크시어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 종을 속량하시려 아들을 내어 주셨네”. 파스카 촛불처럼 빛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파스카 신비를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2026년 4월 5일 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벅찬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입당성가 : 131번 ‘찬미 노래 드리자’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의 전례

제 1 독서 : 사도행전 10장 34절. 37절-43절.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 독서 :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장 1절-4절

부속가

<오늘은 의무이고, 팔일 축제 동안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절-9절

강 론 : 교구장 부활 메시지 참조

예물준비성가 : 133번 '부활 송가'

영성체 성가 : 135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영성체 후 묵상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고쳐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든 것을
우리도 굳게 믿고 이웃에게 전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8번 '만왕의 왕'

2026년 4월 12일 주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는 오늘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기리는 날로 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자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39번 ‘알렐루야’

본기도

+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장 42절-47절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1장 3절-9절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9절-31절

강 론 : 교구장 부활 메시지 참조

예물준비 : 132번 '감사의 송가를'

영 성 체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영성체 후 묵상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의 발 앞에 엎드려 토마스 사도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2026년 4월 19일 주일 / 부활 제3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살아 숨 쉬기를 청하며,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 22절-33절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2 독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1장 17절-21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장 13절-35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의 샘’ 참조

예물준비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 성 체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우리 삶에는 의욕을 잃는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먹고살 일이 막막하게 느껴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험겨운 길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하시며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시는 가장 가까운 길 벗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9번 ‘알렐루야’

2026년 4월 26일 /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목자의 비유를 드시며 당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오늘 '성소 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직과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늘 귀 기울이도록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풍성한 성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한마음으로 청합시다.

입당성가 : 55번 '착하신 목자'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 36절-41절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것 없어라.

제 2 독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25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1절-10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의 샘’ 참조

예물준비 : 332번 ‘봉헌’

영 성 체 :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에 낯선 이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인생의 갈림길과 유혹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품에 머무른다면 참된 삶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8번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